

# 어머니의 바다

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건,  
어머니의 파스한 시선 가운데  
마음껏 해변에서 뛰어 놀고 있던 어린아이..  
에메랄드 빛처럼  
축축하게 내 마음을 실레게 해 주었던  
푸른바다와..  
내 안에 가득한 상념과  
피곤에 지친 마음들을  
쉬게 해 주었던  
투명했던 오후의 고요한 빛..  
귀를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 
아름다운 하모니를 듣는것처럼  
포근하고 파스했던,  
그렇게 다가온 아타미의 첫 인상이었다.

장영권  
일본시진에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,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 
블로그 <http://blog.naver.com/sg80050>

